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4월 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2011년 이래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한 단속 티켓의 84% 증가 발표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이 4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오퍼레이션 행업 동안 부주의 운전 단속 실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의 노력으로 뉴욕주에서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한 단속 티켓이 2011년 이래 84%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이래 셀폰 티켓의 수는 매년 감소하였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같은 기간 문자 발송 티켓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율로 뉴욕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는 고가시성 부주의 운전 단속 캠페인인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 및 오퍼레이션 행업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부주의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이며 주 경찰은 이 위험한 행위를 대거 단속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도로에 손은 핸들에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비극을 예방하고 이 주를 더 안전한 뉴욕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운전중 문자 발송의 근절을 높은 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또한 2011년에 주지사는 운전중 문자 발송 위반의 벌점을 2점에서 3점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3점에서 5점으로 올리는 규정을 시행하도록 DMV에 지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운전중 문자 발송으로 유죄 확정된 수습 및 미성년 운전자들에 대한 벌칙을 크게 늘리는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 수습 및 미성년 운전자는 1회 위반시 120일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위반하면 1년간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발송하면서 운전하다가 잡힌 운전자는 최고 \$450의 벌금과 벌점 5점에 처해집니다.

2015년의 예비 숫자는 문자 발송에 대해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이 발급한 티켓의 수가 2014년 대비 증가하였고, 2011년 이래 매년 급증하였음을 이미 보여줍니다.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이 발급한 티켓의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셀폰 티켓 수	248,540	217,192	208,472	165,087	132,028

문자전송 티켓 수	9,015	30,307	55,692	76,212	84,720
총 부주의 운전 티켓 수 (셀폰 및 문자전송 합계)	257,555	247,499	264,164	241,299	216,748

2014년과 2015년에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기관이 발급한 부주의 운전(셀폰 및 문자전송) 티켓의 수에 대한 카운티별 리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GTSC 의장 대행 겸 DMV 부커미셔너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도 목숨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운전 중에 문자를 전송하거나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사람마다 위험에 빠뜨립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을 때마다 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운전 중에 우리의 폰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Joseph A. D’Ami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심 운전은 과속이나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며 계속해서 자동차 충돌의 주요 요인입니다. 매년 누군가 자신의 휴대 기기를 내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극과 희생자가 뒤에 남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타입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 교육과 단속을 통해 주경찰은 부주의 운전자를 계몽, 탐지하고 체포함으로써 뉴욕주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안관협회 회장 겸 Herkimer 카운티 보안관인 Chris Farb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전은 온전한 주의를 요구하며 작은 오류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안관들은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인을 교육하고 우리 주의 엄격한 부주의 운전 법률을 강제하기 위해 4월 중에 우리의 노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서장 협회 회장 Margaret E. Ry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서장 협회는 이번 주중의 강력한 고가시성 단속 캠페인 동안 운전 중 전화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하는 위반을 겨냥하는 법집행 노력을 전폭적으로 후원합니다. 전주의 다른 교통 안전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현행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우리 하이웨이에서 불필요한 사고와 부상을 줄이기 위한 성공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Nassau 카운티 집행관 Mang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주의 운전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운전중 문자 발송은 운전자의 눈을 도로에서 떼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산만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오퍼레이션 “행업”은 공격적인 주 및 카운티 단속을 통해 부주의 운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도 목숨을 잃게 할 만한 가치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뉴욕주는 모든 운전자들의 휴대용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불법 활동의 [예](#):

- 휴대용 전자 기기를 잡고 있는 것.
-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웹사이트 같은 전자 데이터를 작성, 발송, 읽기, 액세스, 탐색, 전송, 저장 또는 가져오는 것.
- 이미지 보기, 취하기 또는 전송하기.
- 게임하기.

법률의 예외:

- 운전자가 어느 한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신할 수 있는 핸드프리 모바일폰을 사용할 때.
- 차량 표면에 부착된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할 때.
- 차량에 부착된 GPS 기기를 사용할 때.
- 전화 통화의 목적이 비상을 경찰 또는 소방서,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앰블런스단에 알리기 위한 것일 때.
- 승인된 비상 차량을 공식 직무 수행 중에 운전할 때.

2014년에 전주적으로 48,000여건의 경찰 보고 자동차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산만”을 원인 요소로 기재하였습니다. 운전자들은 많은 요인으로 산만해질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 전송은 운전자로부터 눈, 손 및 인지 주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산만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전국하이웨이교통안전청(NHTSA)의 보고에 의하면 2초 이상 딴 데 보면 충돌 또는 아차 충돌 위험이 배가됩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내는 동안 운전자의 눈이 도로를 벗어나는 시간의 평균량은 5초입니다; 시속 55 마일로 주행할 때 그것은 눈감고 축구장 길이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퍼레이션 행업 및 기타 특별 이니셔티브를 위해 GTSC는 경찰 기관들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GTSC는 또한 뉴욕주 경찰과 지역 경찰 기관들이 주의산만 운전, 음주 운전, 과속을 단속하고 기타 범집행 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DM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GTS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